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공간으로 ‘국민행복’ 구현”

생활 · 복지 · 문화공간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질적 수준 향상 위한
정책연구 수행

“건축과 도시공간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실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향상된 경제력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정부의 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민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 메사추세츠공과대 건축학 석사와 펜실베이니아대 건축학 박사를 취득하고 1987년 아주대에서 건축학 교수를 시작으로 아주대 공과대학 학장과 산업대학원 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기획가,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분과위원장 등 건축과 도시설계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2년 9월 제3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였다. 제 소장은 국내 건축학 발전에 대한 지대한 공헌으로 1977년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화공보부장관상과 2011년 제7회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건축물과 도시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삶과 복리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건축도시정책은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제 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도시재생기구나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취임 후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소회나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2012년 취임 당시 경영 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선도’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공간, 복지공간,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를 위한 연구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학과 학회에서 전문지식 탐구와 전문지식의 실무 적용을 강조해왔으나 국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부자원을 정책 연구에 집중시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발굴 및 수행체제를 개선하고 정책고객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 중심의 고객 맞춤형 연구성과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취임 후 연구진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연구본부 내에 센터를 배치하는 등의 연구소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실현 및 고도화와

〈제해성 소장〉

- 1953년 2월 28일 출생
-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 메사추세츠공과대 대학원 건축학 석사
-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건축학(도시설계) 박사
- 아주대 공과대학 학장, 산업대학원 원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기획가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문화분과위원장
- 現 제3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과 지난 6월 3일에 공포된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해왔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도시재생기부로 지정되어 선도사업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도하는가 하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공간은 국민 삶의 질과 문화적 자
금심에 직결... 문화와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실제 수준은 향상된 경제력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건축물과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전한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이 제정되었고 건축도시정책이 국정的重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개발과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립은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염원하던 일이었는데요 건축,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었거나 미흡한 정책, 제도, 기준 등에 대해서 연구소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좋은 건축과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큼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공간이 국민의 삶

의 질과 문화적 자금심에 직결되고 우리 문화와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공간, 복지공간, 문화공간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시행...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 관리,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자문 응답 등 지원활동 강화
▲건축행정, 건축산업 동향, 건축자산 등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련 DB 구축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시다면.
‘건축기본법’ 이 2007년 제정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을 정책으로 다루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던 것과 비교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의 건축정책은 국민보다는 건축전문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건축정책, 공간정책이 국민을 지향해야 하고 나아가 이는 국민행복에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건축문화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열악한 지역 공간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공간 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 관련 업무체계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평가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 지정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공모 및 평가를 주관하였으며, 현재는 선정된 선도지역의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여러 지자체의 도시재생 방향 설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연구소에서는 개소 초기부터 공공건축이 국민의 행복과 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공공건축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5일 연구소 내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개

소하였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4년 6월 5일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법정센터입니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절한 품격 확보 및 공간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 관리,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자문 응답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및 도시정책 관련 정책지표와 통계 등을 확충하는 정책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 분야 비해 건축 분야는 그러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는 건축 분야가 그동안 정책과제로 크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던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민간 부문의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행정, 건축산업 동향, 건축자산 등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련 DB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아우름(www.aurum.re.kr)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점(點)’으로부터 재생이 시작, 도시와 마을이라는 ‘면(面)’으로 확대되는 과정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늘어나고, 지자체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건축문화 기반의 도시재생’ 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까지 도시재생은 병 든 환자를 한 번의 수술로 낫게 하듯 쇠퇴한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정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대규모 계획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인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도시재생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리며 기존의 커뮤니티를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소규모 재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계획, 소규모 재정비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논의의 핵심에는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비와 개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지역자력 재생’,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도시와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물과 자투리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나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활력을 잃었던 도시와 마을이 생기를 찾아가는, 즉 건물이라는 ‘점(點)’ 으로부터 재생이 시작되어 도시와 마을이라는 ‘면(面)’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제도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특별가로구역, 단독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은 기성시가지의 소규모 재정비를 활성화하여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공사 단계,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검토 및 디자인 관리 종합
—최근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리체계의 구축과 정착 ▲디자인 역량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기획 업무 지원 및 자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업무 지원 및 공공건축 통합계획 수립 및 지원, 우수 공공건축 사례집과 매뉴얼 개발과 공공건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대형화로 인한 호화청사 논란 ▲전면 유리로 설계된 공공청사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 ▲자기과시적 디자인으로 인한 기존 도시맥락과의 부조화 ▲시공 과정에서의 건축가 의도 왜곡 등 공공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최근 서울시청사와 DDP가 서울 도심부에 들어서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사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되어

야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공사 단계,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검토와 디자인 관리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책동향, 건축INFO, 건축문화자산, 설계경기, 인물·조직, 연구동향 등 6개 분야 정보 제공
—건축·도시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아우름(AURUM)’에 대해서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우름 홈페이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 정책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정책수립 및 홍보를 지원하고 국내 주요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건축물 정보를 총망라하는 종합 정보 사이트가 탄생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도시 관련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우름 홈페이지는 크게 정책동향, 건축INFO, 건축문화자산, 설계경기, 인물·조직, 연구동향 등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문화자산 정보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용도별 맞춤 검색이 가능하고 수상 이력이 있는 건축물 및 건축가에 관해서는 관련 설계자 및 설계사무소 정보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아우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보다 국내 건축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지난 2010년 12월에 설립된 ‘국가한옥센터’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한옥센터는 올해로 설립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그간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문화 진흥을 위한 싱크 탱크로서 한옥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일 공포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정책 방안 및 기준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여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4회 한옥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한옥관련 단행본과 한옥브리프 등 출판물을 통한 홍보를 통해 한국 고유의 건축자산인 한옥이 적극적으로 보전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해피아워’ 다과회 열어 신입직원 소개 및 연구소 활동 등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연구소 내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요,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소장께서는 평소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관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장을 이끌어온 건인은 바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연구소가 여러 층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다른 층 직원들을 마주칠 기회가 흔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연구소 구성원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어울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해피아워’라는 이름으로 다과회를 열어 신입직원 소개도 하고 연구소 활동 등에 대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번호 추첨을 하여 해당 번호가 생일날인 직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소통법을 꼽자면 요새 유행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구성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회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구성원들을 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SNS 속에서는 조직의 수장과 구성원이 아닌, 선후배 혹은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셈이라고 할까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 도시 및 공간에 대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이론적 토대 세우고 국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 발굴해 실천하는 방안 제시
—향후 연구소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요.

‘공간 정책’이 정부 정책에서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자리 잡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부분 개선이 되고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정책분야는 오랫동안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자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간·행정·재정 분야의 지원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이는 고전 경제에서 토지·노동·자본이 생산의 3대 요소인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매력적이고 건강한 건축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공간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공간 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복지 투자의 근본이며 이는 소비성 복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은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되어 국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양적 확충,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간정책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 도시 및 공간에 대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써 이 분야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국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비전을 두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재생 과정의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 건축과 도시공간에 애정과 관심 갖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데에 힘 모아 주기를
—건축 분야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공공성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 진흥 ▲국토환경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기본법’이 입법되었고 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간의 건축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기도 건축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정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공익, 즉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이롭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건축정책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 분야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생활공간, 복지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정책 입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인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공공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재생 과정에서의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동진·김민태 기자〉